

1992년 1월 30일 제123회 참의원 본회의

○ 일시: 1992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1분 개의

○ 발언자:

- 다치키 히로시(立木洋) 의원(정치가, 일본공산당 소속 참의원 의원,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일본공산당 명예임원)
-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의원(변호사, 정치가, 참의원 의원, 사회당 부서기장, 사회민주당 부당수, 민주당 총무위원장, 법무대신. 앰네스티의원연맹 사무국장, 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구명법 성립을 지향하는 의원연맹, 조선반도문제연구회 고문,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추진하는 의원연맹 대변인,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 호적법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등)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대장성 관료, 정치가,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 경제기획청 장관, 중의원 의원,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내각관방장관, 부총리, 대장대신, 우정대신,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자민당 총무회장, 자민당 총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15254X00319920130&spkNum=6¤t=34>

○ 해제(개요 및 특징)

다치키 의원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당시 국가가 관여했다고 단정하면서, 침략전쟁으로 빚어진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함. 지바 의원은 아시아인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현재진행형의 과제임을 역설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함. 이에 대해 미야자와 총리는 종전의 원칙적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다치키 “저는 일본공산당을 대표해 총리의 시정방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략)

넷째, 헌법 위반인 자위대(自衛隊) 해외파병법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일한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국제공헌에 대해 비군사(非軍事)를 강력히 요구받았고, PKO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또 일본이 관여한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것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전 일본정부에 의

한 침략전쟁이 만들어 낸 용서할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군사 면에서의 국제적인 관여를 어떤 형태로든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의 평화원칙을 짓밟는 일본정부의 언동에 대한 혹독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하여 예전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략)

- ▷ **지바** “저는 일본사회당·호헌공동을 대표하여 미야자와 총리 및 관계 각료에게 질문드립니다. (중략)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인이 여러 외국의 사람들, 특히 아시아의 이웃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문제에 대한 총리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시정방침에 따르면 과거에 관한 역사인식 문제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로 인해 참기 힘든 고통을 체험하신 분들은 현재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더구나 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대응을 해 오지 않은 점, 이런 사실들로 보면 이 문제는 지극히 현재진행형의 과제이고, 이분들에 대해 지금 무언가 보상해야 함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 ▷ **미야자와 국무대신** “(전략)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슴이 메는 심정으로 사죄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 당시 군이 관여했는가, 모집이나 시설의 경영 등과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다시 성심성의껏 조사하고자 합니다.”

(중략)

- ▷ **미야자와 국무대신**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이른바 **중군위안부**,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해서는 국회에 ‘대외전후보상(對外戰後補償)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성의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국회라는 장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